

# 자영업자 생계 좌우... 노조 대승적 결단 나서야

**서민경제의 대들보, 봉고트럭 증산 시급하다**

### 한국GM 내년부터 생산 중단 수요 늘 듯 수출물량 부족 해외 딜러들 불만도 폭주

#### <下> 대안과 해법

한국GM은 내년부터 경승용차인 다마스과 라보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수익성이 떨어진다 것이 이유다. 단종이 된다면 국내 시장에서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소형 화물차는 기아차 봉고트럭과 현대차 포터 등 2종만 남게 된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GM이 생산을 계속 하게 해 달라”며 청원을 넣는 등 반발하고 있다. ‘생계형 서민의 발’이 사라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아차의 경우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수요

에 맞춰 봉고트럭을 증산하려 해도 노획의 일방적 반대로 증산을 못하고 있는 것.

현재 국내 1t 트럭 시장은 크게 현대차의 포터와 기아차의 봉고트럭이 양분하고 있다. 기아차에 따르면 이들 트럭의 내수 평균 판매량은 월 1만 2000대 수준이다. 소상공인들이 다마스과 라보의 단종에 반대하는 것은 1만 2000대로는 전국 자영업자의 수요를 맞추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증산을 하지 않고 현재의 생산 체제를 고수한다면 수년 내 국내의 1t 트럭의 주문물량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은 중고차 시장에서 이들 트럭의 인기만

보더라도 기정사실이다.

게다가 내수보다 수요가 더 많은 수출물량까지 합하면 봉고트럭의 증산작업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미 해외시장에서도 딜러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결국 봉고트럭 증산의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증산의 열쇠를 가진 기아차 광주3공장 대의원측은 3년여를 모조 트럭으로 일관중이다. 노획은 “절제한 물량검증과 투자 요구”만 주장하며 실제 밀려오는 주문량을 외면하고 있다. 봉고트럭이 처한 현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다.

사측은 지난 협의 과정에서 현재의 23.1UPH(시간당 생산 대수)를 26UPH로 올리려 했으나 빠른 협의를 위해 25.1UPH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여기에 증산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복지 등 모든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방안까지 제공했다. 하지만 노획은 증산 필요성보다, 사측의 증산 요구에 강경하게 반대만 하고 있다. 실제 노사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최근 일부 대의원이 회사간부에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감정싸움 양상까지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62만대 증산합의에서 노조 집행부가 역할을 했듯, 3공장 봉고트럭 증산도 지회가 직접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협의를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노조 집행부인 광주지회는 3공장 사태를 관망할 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봉고트럭 증산은 단순한 광주공장의 생산대수 증대가 아니다. 많은 자영업자나 농업 종사자들이 적체된 주문량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한 부서 문제라고 외면하는 것은 지회가 소극적으로 움직인다는 비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특히 서민과 밀접한 증산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노획은 또다시 ‘귀족노조’의 오명도 함께 ‘슈퍼갑’ 대기업 노조의 횡포로 비칠 수밖에 없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봉고트럭 문제는 62만대 증산에 가려 부각되지 못했지만, 광주공장 대표 생산차량일 뿐만 아니라 지역을 넘어 전국 자영업자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서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하루 빨리 증산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으로 전해졌다.

봉고트럭 증산은 단순한 광주공장의 생산대수 증대가 아니다. 많은 자영업자나 농업 종사자들이 적체된 주문량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한 부서 문제라고 외면하는 것은 지회가 소극적으로 움직인다는 비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특히 서민과 밀접한 증산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노획은 또다시 ‘귀족노조’의 오명도 함께 ‘슈퍼갑’ 대기업 노조의 횡포로 비칠 수밖에 없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봉고트럭 문제는 62만대 증산에 가려 부각되지 못했지만, 광주공장 대표 생산차량일 뿐만 아니라 지역을 넘어 전국 자영업자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서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하루 빨리 증산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향은 더하고 맛은 깊어지고

### 하이트진로 8년만에 리뉴얼 ‘맥스’ 출시

하이트진로(사장 김인규)의 100% 보리 맥주인 맥스(Max)가 출시 8년을 맞아 새로 태어났다.

국내 최초로 ‘올 몰트 비어’(All Malt Beer)인 맥스는 2006년 첫 선을 보인 후 8년간의 노하우로 맥주 주원료인 몰트와 홉의 최고 비율을 찾았다. 새롭게 리뉴얼된 맥스는 맥주의 주원료인 몰트와 홉을 최상의 비율로 혼합해 씹새로운 맥주 특유의 맛을 더욱 깊게 하고 풍부하게 했다. 또한 미국 최대 홉 생산지인 야카마 밸리의 엄선된 캐스케이드 홉과 최고 품질 맥아를 원료로 고유의 향을 더해

다. 맥주의 깊은 맛을 오랜 기간 유지해주는 거품의 지속력을 크게 강화했다. 기존 대비 30% 증가한 거품은 맥스의 깊고 풍부한 향을 마지막 한 모금까지 유지시켜주며 시각적인 맛도 더욱 높여준다.

한편 맥스는 세계 3대 주류품평회인 몽드셀렉션 주류품평회에서 3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3월에는 맥주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IBA(International Brewing Awards) 주류품평회에서 아시아 참가국 유일의 금상을 수상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기아차는 23일 광주공장에서 전량 생산되는 ‘더 뉴(The New) 스포티지R’의 사진발표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기아차 제공>

## 기아차 ‘더 뉴 스포티지R’ 출시

### 시양 늘리고 가격은 낮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전량 생산되는 ‘스포티지R’의 새로운 모델인 ‘더 뉴(The New) 스포티지R’이 23일 출시됐다.

기아차는 이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기아차 사옥에서 ‘더 뉴(The New) 스포티지R’의 사진 발표회를 개최하고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새롭게 선보인 ‘더 뉴 스포티지R’은 고급스러운 내외관 디자인과 개선된 주행 편의성은 물론,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춰 소형 SUV 시장의 절대강자로서 면모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새 모델은 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에 크롬 라인을 적용해 한층 고급스

럽게 외관을 꾸며주며 안개등에 하이그로시 가니쉬를 적용해 고급스러움 이미지를 구현해낸 것이 특징이다. 또 옆면은 신규 알루미늄 역동성을 강화했으며 뒷면은 새로운 LED 리어 콤파니이션 램프를 적용해 볼륨감 있는 스타일을 완성했다. 고급스러운 내외관 디자인과 주요 사양 기본 적용을 뛰어난 상품성을 갖췄으며 가격도 최대 80만원 인하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해 ‘착한 가격’도 실행했다.

가격은 2.0 디젤 2WD 모델의 경우 ▲럭셔리 2050만원(M/T)~2220만원(A/T) ▲트렌드 2380만원 ▲스포츠 2565만원 ▲노블레스 2775만원이며 2.0 가솔린 터보 2WD 모델은 ▲럭셔리 2125만원 ▲트렌드 2325만원이다.

/임동률기자 exian@

## 치솟는 전세가... 주택매매 살아나나

### 여름 비수기 불구 월세 선호 6·7월 0.9% 상승

여름철 비수기에도 전세시장이 이상 상승하고 있다. 저금리와 저성장 시대에 집주인의 월세 선호 현상이 겹쳐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취득세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해 주택 매매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기세는 커졌다. 그러나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져 활성화와 가격 상승 전환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엇갈린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6월과 7월에 0.9% 상승했다. 작년 6월과 7월에 0.1%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세가격이

치솟자 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에 미리 전세를 구하려 움직이는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은 저금리시대 집주인들이 일정 수익이 나는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물량이 풍부현상을 빚기 때문이다. 반전세 수익률은 연 6~9% 수준인 데 반해 은행 금리는 3%에 불과하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2009년 이후 인허가를 받은 26만가구중 대다수가 1~2인 가구 월세로 공급됐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3천271가구로, 2000년 이후 가장

적어 전세 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돈 있는 세입자들이 집값 하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도 한층하고 있다.

소득 상위 20% 이내 고소득층(소득 9~10분위)의 자가점유율(자기 소유의 주택에 자가 사는 비율)은 지난해 58.7%로 2006년보다 6.0%포인트 떨어졌다. 중소득층(소득 5~8분위)도 2012년 43.2%로 6.3%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고소득층과 중소득층 전세 점유율은 같은 기간 각각 6.2%포인트, 1.4%포인트 증가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매매 활성화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연철뉴스

## 에너지 효율 낮은 車 제조·수입 과징금 에너지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자동차를 만들거나 수입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한다.

공포안에는 자동차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소비효율기준을 어겨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에어컨터블 직접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더라도 창세트(창틀과 유리)를 결합한 제품, 타이어 등 에너지 절약과

관련 물품을 고효율에너지인증 대상 기자재로 지정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3.0’ 추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행정정보의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된다.

/연철뉴스

▲ 코스피지수	▲ 코스닥지수	▲ 금리(국고채 3년)	▼ 원·달러 환율
1904.15 (+23.80)	541.64 (+0.50)	2.88% (+0.03)	1117.00원 (-1.90)

### ‘승강기 유지관리품질 우수업체’ 대명엘리베이터 3회 연속 선정

안행부 74개 항목 평가

대명엘리베이터(대표이사 최광일)는 23일 최근 안전행정부로부터 3회 연속 ‘승강기 유지관리품질 우수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지난 2006년부터 3년마다 엘리베이터 업체의 유지관리 품질 만족도와 고객안전, 현장안전관리 및 자재관리 등 74개 항목을 평가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업체에게는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시 유지관리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선진 유지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지원도 하고 있다.

최광일 대표는 “고객의 안전과 편의 등 고객만족을 위한 대명엘리베이터의 노력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기쁘다”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감동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 28석, 16석 룸반비)

구분	영업시간	상인도(100석)	취학(90석)	미취학(68석)
평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

### 유스퀘어점 YONAMJA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홍골레 Yonggolle ₩10,800	베이컨 카르보나라 Bacon Carbonara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	핫 스파이스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허니고르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

## 전여세대 분양중 지리산 노블랜드

### 산 좋고 물 좋은 백운산 400고지

콘도/팬션/별장/요양시설  
귀농자, 요양자 10%할인  
국유지 필요평수 임대 가능 (산삼, 약초, 산나물, 텃밭 사용)  
화개장터, 썰매사, 화염사, 노고단 근접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840만원	18평 3000만원 가능
28평(26실) 1억 640만원	28평 5000만원 가능
56평(1실) 2억 1280만원	56평 1억원 가능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H. 010-4451-6686 / 법무사 직접상담

지리산노블랜드 분양 / 구례군 간전면 윤천리  
직통 : 010-3605-5000 / (주)오천경매